



만만한 기부 출범 1주년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수상작

주최: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 대학신문사

수상작 소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김용재

최윤지

안솔지

한옥희

정지훈

유혜림

장 윤

홍진우

인문대학 종교학과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BK화학분자공학사업단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편지

삶을 살아가다 지치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꺼내들던 책이 있다.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문장으로 시작한다.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준다. 그리고는 아무 것도 묻거나 재촉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그의 가능성이 꽃처럼 스스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묵묵히 기다린다. 이것은 소설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이다.

내가 처음 그 분의 도움을 받은 것은 2012년도 2학기였다. 우연한 계기로 장학금을 알게되어 반신반의하며 신청을 해 두었는데 덜컥 선정이 되었다. 성적이 그리 우수한 편이 아니었기에 선정이 된 후에 의아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나는 너무도 철이 없었다. 누가 내게 이런 큰 도움을 준 것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저 내가 운이 좋아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돈을 받게 된 것이라 여겼다. 나는 나밖에 몰랐다. 장학금이 얼마나 감사한일인지 알지 못했다. 그 뒤로 계속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처럼 주어진 장학금으로 나는 경제적 부담감을 완전히 털어놓고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기에 졸업을 앞두고 내 앞에 펼쳐질 불투명한 가능성들을 더듬으며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지새운 밤들이 적지 않았다. 원래 음악대학 작곡과 학생이었기에 당연히 동대학원 진학을 고려했지만, 나는 이상하게 음악을 하면서도 늘 책을 더 좋아했었다. 종교와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들여다보게 하는 두 개의 창이라는 생각에 음악을 하면서도 종교학을 복수전공할 정도였다. 고민 끝에 종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예술과 종교를 통해 나와 타인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학부 졸업 뒤로는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었고, 수소문해보니 많은 장학금은 이공계 쪽에 집중되어 있거나 학부생만을 위한 것이었다. 공부를 더 하려면 장학금이 필요했지만 인문대 석사를 위한 장학금을 찾기가 어려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염치없게도 내게 학부 장학금을 주셨던 분에게 편지를 써서 장학금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생각을 했다.

편지지를 사서 책상 앞에 앉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부끄럽게도 그제서야 나는 내게 몇 년 동안 아무 것도 묻거나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장학금을 주신 그 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보고 그 분이 걸어오신 길과 하신 일들을 살펴보았다. 심지어 책도 있었다. 놀랍게도 그 분과의 인연의 시작은 2012년이 아니라, 내가 입학했던 2010년부터였다. 모든 지방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지은 ‘충북학사’ 라는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쾌적한 시설과 훌륭한 식사가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었다. 바로 이 기숙사의 건립에 그분의 큰 힘이 있었다.

그분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하신 수많은 좋은 일들에 존경심이 생기는 동시에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수년간 큰 도움을 받아 놓고도 내게 도움을 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내가 그분에게 관심을 가진 것도 염치없게 한 번 더 장학금을 부탁드립니다 위해서였다. 나밖에 몰랐던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장학금을 내놓는다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지만 쉽지 않은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편지를 써서 그분에게 보내고 얼마 뒤 장학생에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도서관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지를 뻔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2016년에 대학원에 입학한 뒤에도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내가 관심가지던 주제들을 다른 걱정 없이 탐구할 수 있었기에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마지막 학기를 맞게 되었다. 2017년 8월 25일 마지막 장학수여식에 참석했다. 학부에서 석사까지 짧지 않은 기간동안 많은 장학금을 받았던 일들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장학금을 받게 된건 지금 생각해도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편지를 쓰기로 했다.

편지를 쓰면서 수년간 큰 금액을 믿고 지원해주신 그 분에 대한 감사함과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수여식에서 내 이름이 호명되어 앞으로 나가서 그 분에게 예쁜 꽃다발과 함께 편지를 전해드렸다. 미소를 띠시며 짧게 “고마워” 하시고는 자리에 앉자마자 편지를 꺼내 읽으시는 모습을 보니, 보잘것없는 편지와 꽃으로나마 내가 느낀 한없는 감사함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다.

장 지오노가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고 썼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 해동안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기심에서 벗어난 고결한 베품을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해 오신 그 분과의 인연은 분명 “잇을 수 없는 한 인격” 과의 만남인 셈이다. 편지로 시작된 인연이 편지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앞으로 내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펼쳐질 것이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나는 내게 되묻게 된다.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잇을 수 없는 한 인격” 이었는가? 절대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철부지였으니. 하지만 그러한 인격과의 만남을 경험한 뒤 나 역시 감히 그를 닮아가기를 조금씩 꿈꾸게 되었다.

묵묵하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나무를 심어 황야를 아름다운 숲으로 바꾼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주어 그들이 경제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게 했던 임광수 회장님처럼, 나는 그런 “잇을 수 없는 인격” 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렵지만 가슴에 품기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이제는 내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이다.

결혼으로 이어진 장학금의 인연

저는 장학금 덕분에 결혼한 사람입니다.

약 8년 전에 대학원 박사 과정 중에 우연히 어떤 기업의 장학생 선발에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였습니다. 그 장학금은 지원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1박2일 워크숍 등 장학생들끼리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어 다양한 대학과 학과의 또래들을 만나 친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 서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었고, 저희는 몇 년의 연애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생 친구 중 한 명이 결혼식 사회를 봐 주었고, 장학재단에서도 저희의 결혼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학교도 다르고 전공도 달라서 그러한 계기가 없었다면 서로 알지도 못할 사이였을 텐데, 장학금 덕분에 여유롭게 공부하면서 평생의 인연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남편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저는 한국에 남아 시간강의를 하며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기업 장학생 지원이 끝난 시기라서 일을 하며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교에서 박사 논문 집필자를 위한 새로운 장학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기초학문후속세대 장학금’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의 수혜 기회가 적은 기초학문 분야의 박사과정 및 수료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여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는 장학금이었습니다. 2012년 처음 생긴 이 장학금에 제가 운이 좋게도 선발되었고 덕분에 3년 동안이나 강의나 아르바이트에 시간과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박사 논문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혜택과 지원을 받았는데도 형편없는 논문이 나오면 어찌나 하는 부담감과 걱정이 늘 따라다니긴 하였지만, 그리고 좋은 환경과 별개로 연구는 진척이 없을 때가 많아 괴롭기도 하였지만, 돌아보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논문 생각만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또한 강의 일을 하지 않은 덕분에 남편이 있는 도시에 가서 같이 살면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보다도 이 점이 더 큰 장학금의 은덕인 것 같습니다. 이역만리 서로 떨어져서 외로운 연구의 길을 걸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기초학문후속세대 장학금 덕분에 그 고난의 길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연구를 할 수 있는 제 전공의 특성 덕분이기도 하겠지요.)

저는 작년에 드디어 논문을 완성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남편은 아직 외국에서 논문과 공부 막바지 씨름을 하는 중입니다. 저의 기나긴 학생으로서의 삶도 끝이 났고 이제는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장학금 덕분에 많은 혜택을 누린 운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제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과 관련 없이 순수학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여러 재단과 학교 등의 기관, 그리고 그러한 선진적인 사회적 풍토의 은혜를 입은 덕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것만 해도 사회에 기여해야 할 몫이 큰데, 이러한 특별한 은혜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을 헤아리기 힘듭니다. 남편과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장학금은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십 대 시절, 나는 몽상가 기질이 있었다. 아니, 나의 몽상은 망상에 가까웠다. 처음으로 1등을 했을 때, 모범생들만 모이는 것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에서도 특별 반에 선발되었을 때, 성적표에서 1등급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린 시절 읽었던 위인전의 인물들에 대입했다. 그는, 혹은 그녀는 아버지 없이 자라 어린 시절에 찢어지는 가난을 겪었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매번 등장하는 뻘한 얘기가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른다. 나는 빗더미만 남기고 가족을 떠나신 아버지와 마땅한 직업이 없으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나의 환경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스무 살 때 까진 그랬다.

스물 두 살, 나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현실을 마주했다. 내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나는 책 속의 위인이 아닌, 평범한 학생이란 것이었다. 아니, 평범한 걸 넘어서 초라하고 가난하기까지 했다.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자란 사람과 나 사이엔 경험의 차이가 존재했고 나는 그 차이만큼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그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고정된 직업이 없으셨던 어머니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일년 중 서너 달은 직장이 없으셨지만 한 번도 나를 굶기신 적은 없으셨다.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직장이 없으셨을 때 이모께 돈을 빌리시거나 집주인에게 부탁해 월세를 미루시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당신은 끼니를 굶어서라도 내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던 것이다.

나는 그 동안 내가 톱 부러지게 살아온 줄 알았다. 내게 보잘것없는 환경을 물려주신 부모님을 원망했고 어머니가 초라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에 죄책감을 가져본 적은 없었다. 이제 현실을 마주하니 지금까지 품어왔던 모든 생각과 감정에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았다. 나는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도움에 기대면서 꿈만 꾸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우습게도 내가 내린 결론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어머니나 친척들이 아닌, 내가 4년간 다니게 될 이 학교의 도움을 받자고 결심했다. 나는 학교 포털 사이트를 뒤져보고 학과 사무실도 찾아가봤다. 다행히 내가 당장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었다. 그때는 때마침 선한 인재 장학금 신청기간이었고 나는 소득 1분위 학생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에 속해있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을 신청하고 나니 매달 30만원이란 돈이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왔다. 첫 장학금이 들어온 날 가슴이 두근거렸던 느낌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지난 날 어머니가 한 달 동안 힘들게 일하시고 버신 돈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하고 학교만 다닌 내가 한 달에 30만원이나 받는다니! 나는 더 이상 매 끼를 먹을 때마다 다음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했다. 그리고 한 편으론 지난 이십 년간 우리 모녀를 그토록 괴롭혀왔던 돈이 이렇게 간단히 손에 쥐여질 수 있다는 사실에 허탈해졌다. 30만원은 큰 돈이지만 고작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돈인데…… 그 동안 천 원짜리 지폐 세 장에도 수 없이 고민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가슴이 떡떡해진다.

한 학기가 지난 뒤엔 근로장학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근로 장학도 같이 신청하니 4월쯤에 학과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그 후 5월부터 매일 오전 오후로 학과 사무실에 들러 공대 행정실로 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시작했고 한 달에 48만원이란 돈이 내 손에 쥐어졌다. 선한 인재 장학금에다 근로 장학금까지 받으니 나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훨씬 윤택해졌다. 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생활비를 해결했고 근로 장학금에 약간의 돈을 보태 한 달에 50만원씩 저축했다. 그렇게 저축한 돈으로 기숙사비도 냈고 그토록 꿈꿔왔던 치아 교정도 받았다. 이제 정말로 어머니와 친척들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이다!

대학생활 중 장학금은 일부분일 뿐이지만 내겐 그 작은 부분이 가슴 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숙사비를 스스로 낸 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어른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간 나를 둘러싸고 있던 어머니란 울타리의 일부를 넘어선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학금은 돈에 내재된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켰다. 예전에 나는 돈을 쓸 때 기쁨보단 슬픔을 더 많이 느꼈다. 꼭

필요해서 돈을 쓰는 상황에서도 돈이 사라져간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장학금을 받게 된 이후에는 소비를 ‘돈이 사라져 가는 것’ 이 아닌 ‘돈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는 것’ 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나는 곧 나 자신에게 투자할 수도 있게 됐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돈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축한 돈의 일부를 꺼내 책을 사기도 하고 문화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꾸미기도 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고쳐나가기를 반복하니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격이 밝아지고 안정돼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장학금과 함께 대학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4학기가 지났다. 그 동안 크고 작은 경험들이 바람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고 그 중 일부는 가슴 깊이 흔적을 남겨놓았다. 처음으로 돈을 벌어난 것, 근로 장학으로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본 것,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뤄낸 것. 장학금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경험들은 심장 기저에 가장 예쁜 모양으로 흔적을 남겨놓았다. 앞으로 그와 관련된 좋은 추억들이 더 쌓여가길 꿈꾸며. 그리고 미래에는 나도 누군가의 심장에 예쁜 흔적을 남길 수 있길 기대하며.

이어지는 축복의 고리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대학원을 다닐 때, 꽤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교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관심 있는 공연이 있는 날에 참석하곤 했다. 연회비를 낼 만큼의 여유는 없어서 당일에 줄서서 남은 표를 사곤 했는데, 어느 날 내 차례가 오니 직원이 “어느 분이 당신에게 이 좌석표를 선물하셨습니다.” 하며 공짜 표를 주는 것 아닌가! 신선한 충격이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없이 아주 좋은 좌석 표를 선물한 것이다. 그 때만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문화적 충격을 느꼈다. 그리고 미국에서 차를 몰고 중부에서 동부로 이사 갈 때, 차들이 끊임없이 와서 진입로를 통해 고속도로로 들어가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서서 트럭의 뒤에서 오던 차들도 가지 못하게 막아 주는 것 아닌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배려심을 느낄 수 있어서 수 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감동이 생생하다.

한국에 돌아와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를 한 20년 쯤 하었을 때였던가, 어느 날 갑자기 위에 이야기한 것들이 떠오르며, 사실은 훨씬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불현 듯 났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에도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았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자신이 공부를 잘 해서 장학금을 받은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했기에, 장학금을 받은 것은 기부를 받은 것이라고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과연 나는 내가 잘 해서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은 것인가? 장학금마다 장학생 선정 조건들이 있으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장학금을 주시며 내게 심었던 씨앗이 수 십 년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이 트고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다시 다음 세대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을 그 분들은 아셨을까? 내 자신이 기부를 고려했을 때는, 수혜자였으니 이제 더 늦기 전에 돌려주어야겠는데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찾아보다가, 이왕이면 후속 세대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장학금지급을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의 내 자신을 돌아보니 싹이 트는데도 수 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 이 방법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

또한 씨를 뿌리면 다 잘 자라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새와 벌레에 먹히고, 일부는 죽지 않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통해서 다른 행위와 비교 할 수 없이 행복해진다는 경험은,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 사랑을 하거나 기부를 할 때 더 희열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도우며 살도록 진화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내가 장학금을 받은 것은 그럴 자격과 능력이 되어서라기보다 서로 돕는 인간 사회의 구조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현재의 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재능과 물질적 소유물들을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은 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보다는 인류 사회에 잘 사용하라고 맡겨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돌아보니 철없이 살아왔던 삶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깨달은 순간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좀 더 누리는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누군가가 심은 씨앗의 열매로 내가 살아왔으며, 내가 심은 씨앗으로 인해 누군가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 열매의 씨앗이 또 뿌려지는 이러한 생명의 고리가 계속될 것을 믿기에, 동시에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면서 이미 자유와 행복이라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아빠 장학금이 뭐야?”

9월의 어느 날, 어느 날처럼 일을 마치고 나를 똑 빼닮은 두 딸과 아내를 떠올리며 퇴근길을 재촉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카레향과 잘 익은 김치냄새가 나를 식탁으로 이끌었다.

내가 의자에 앉자마자 “아빠 장학금이 뭐야?” 얼굴 생김새와 고집 센 성격마저 나와 판박이인 7살짜리 큰 딸이 내게 건넨 질문이다.

“엥? 장학금을 어디서 봤어?” 내가 되물었다. “어... 아빠 학교에서 온 신문에서 봤어, 거기 써 있던데”

딸의 대답은 나의 둔감한 후각으로는 그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계란프라이 노른자가 터짐과 동시에 나왔다. 그리고 딸이 내민 ‘서울대 총동창신문’ 474호 1면에는 “후배들 힘내라! 1300명에 장학금 35억원”이라는 헤드라인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혀, 눈, 코는 각자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지만 내 머리 속에서도 많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내년이면 학부모가 된다는 설레임, 내 딸이 한글을 읽을 줄 알구나 하는 대견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내가 서울대 2000학번, 그 당시 빵빵한 빵빵학번이었던 시절에 대한 회상이었다.

약 17년 전인 그 때로 돌아가보면, 나는 대구에서 올라와 서울과 서울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 분명했다. 관악캠퍼스, 녹두거리, 신촌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새로움이 있었다. 반면 또 경쟁의 시작, 좌절도 있었다.

군대를 가기 전인 2학년 2학기까지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죽도록 놀았던 것 같다. 물론 그래봤자 기숙사에서 동기들과 유행하던 게임을 밤새워 하고 치킨 시켜 먹던 게 주였지만...

많은 것을 느꼈던 군생활을 건너뛰어, 제대 후 2004년 관악캠퍼스 생활이 열렸다. 복학생인 나는 두려움이 꽤나 있었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말을 수 없이 들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겠다. 분명한 것은 시간적 공백이 엄청난 압박감이었다. 졸업까지 2년이나 남은 셈이었지만 오히려 조바심만 심했다.

부모님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취업해서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눈치도 있었다. 한마디로 등록금을 턱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러한 압박은 사회에 대한 적응, 공부에 전념하기도 벽찬 복학생에게는 잔인하리만큼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강통식당에서 점심을 때우고 널 서류가 있어 과사무실에 들렀다.

항상 학생들에게 머라도 하나 건네주던 어머니 같았던 과사 직원분이 “학생, 제대했어?” 라고 물어보시며 내가 건넨 서류를 받았다. 그러고는 “학점 얼마나 돼?” 라고 하길래 B이상은 된다고 했더니 서류를 주시며 “이거 써서 제출해 봐” 라고 하시며 장학금 신청서를 주셨다. 나는 머에 홀린 듯이 빈칸을 메우며 제출하고 나갔다.

항상 자기 전에 머리속으로 장학금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었다. 시간이 흘러 신청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과사무실을 찾았다. 그리고 나를 알아보고는 직원분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신분증, 학생증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해요” 나는 직감적으로 “아 결과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던 기억도 떠오른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엄마 내 장학금 받는데이.” 라고 선언했다.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훈이 장하다, 기특하다” 라며 자랑해야겠다던 것도 떠오른다. 장학금 덕분에 학자금 대출 하나 없이 졸업을 했고, 인생에서 어려웠던 시기를 해치고 지금의 나, 우리 가족이 존재할 수 있게 해 준 점. 정말 평생 감사할 것이다.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서울대의 기운을 느낄 수 있게 10월에 열리는 홈커밍데이에 참여 할 예정이다. 그 곳에서 동기들을 본다면 의미 있고 뜻깊을 것 같다.

아내와, 두 딸과의 저녁을 지속할 있게끔 밑거름이 된 장학금과 나의 모교 서울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20대 시절에 받는 기쁨을 느꼈다면 50대 이후에는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만한 기부 1주년을 맞이하여 나에게 소중한 대학시절을 일깨워 준 서울대학교과 장학금을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생각해본다. 끝.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로 가 있을 때였다.

그사이 한국에서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집이 망하게 되었고, 해외에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어오라는 동생의 전화를 받은지 단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귀국했다. 귀국 후 급하게 학기 등록을 위해 복학 신청을 했고, 등록금을 내야했다. 학자금대출을 먼저 알아보았지만 내 앞으로 있던 빚과 신용 문제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학교 측에 문의했을 땐 이미 다음 학기 장학금 수혜대상자들이 정해진 상태라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대신 학비를 2번 나눠서 분할하는 제도가 생겼으니 그 제도라도 이용해서 학비를 나눠 내면 괜찮을 거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쉽게 될 줄 알았다.

생활비를 벌고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2월부터 과외 5개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기가 개강했을 때 근로장학생을 신청해서 수업 공장 틈틈이 알바 시간을 채워 넣었다.

열심히 하면 쉽게 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돈은 내 생활비, 부모님 생활비, 학비를 보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있던 도중, 총장님이 새학기맞이 재학생들에게 보내는 인사 메일이 와 있었고, 그 메일에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내 상황을 구구절절 써가며 내가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A4용지 4장 정도의 분량과 함께 통과의례적인 메일에 회신을 했다.

메일을 보내고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학비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휴학을하기로 결심했다. 휴학계 접수 마지막날 신청서를 내고 나오는 길이었다. 심지어 비까지 내리는 오후3시였는데, 학교를 나서는 길에 학교 구내번호로 전화가 왔다. 대외협력실이었다. 총장님이 내가 보낸 메일을 보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셨다고 혹시 지금 사무실로 올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 당장에 학사지원팀에 전화를 해서 방금 낸 휴학계는 취소해달라고 했고 한달음에 대외협력실로 뛰어갔다. 담당 선생님께 나의 상황을 설명 드렸고, 총장님께서 메일을 늦게 보셔서 답변이 늦어 미안하다

라는 말도 전해 들었다. 선생님께선 이미 장학금 배정이 완료된 상태라 알아보신 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 말이 있는 다음 주에 담당 선생님께 전화가 왔다. 본인이 학교 다른 직원분과 식사를 하며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선뜻 그분께서 나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 하시고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다. 나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 하셨던 분은 교내에 있는 복사실 점장님이셨다. 매학기마다 미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셨는데 이번학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없어 이번학기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나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는 이 장학금이 나에게 가려고 그랬던 거라며 너무나 행복해 하셨다. 그리고 공장 때마다 복사실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1만원으로 해주시겠다고 어떻게든 나를 도우려고 해주셨다.

그렇게 나는 3학기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복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필요한건 편하게 복사하고 출력해서 쓰라며 오히려 나를 더욱 위로해 주셨고, 지금도 아르바이트 시급 만원이면 높다고들 말하는데 9년 전 그때에 시급 만원으로 2년간 교내 아르바이트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때의 복사실의 경력으로 인해 직장에서는 늘 복사의 신으로 불리게 되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필요한 생활비와 나머지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 6개를 병행했고, 이를 통해 여러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중에 집안 사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 과외를 했던 학생들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과외비는 안주셔도 된다고 했다. 처음엔 받으라고 하셨지만 이내 곧 감사하다고 간식은 맛있는 거로 많이 챙겨 놓아주시겠다고 했다. 3명의 아이들을 무료로 과외를 해주었다.

아마 내가 장학금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냥 나는 과외비를 받으며 과외를 했을 게 분명했다. 왜냐면 난 정말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했던 순간에 장학금을 받게되었고, 그 감사함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냥 당연하게 받은대로 돌려주는 게 당연한 행동처럼 느껴졌었다.

내가 장학금을 받을 당시, 20대 초반 이었을 때, 그 순간 너무 감사했고

벽차했던 감정이 이 글을 쓰는 순간에 더욱 다가온다. 그리고 이제는 장학금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사람 입장에 가까워지며 장학금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준다는 게 얼마나 큰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지 더욱 깨달아가게 된다. 그럴수록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욱 짙어진다. 졸업이후에도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졸업한 나의 모습에 뿌듯해 하시던 점장님의 모습이 기억이 난다.

많은 베품을 받았고,그 받은 만큼 이상으로 베풀어줄 줄 아는 어른이 되겠다고 다시 다짐해 본다.

저희 집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아버지께서 혼자 돈을 버셔서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단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랴부랴 이사를 하며 대출을 받느라 빚이 조금 있는 것 말고는 집이 딱히 가난하지도, 풍족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족은 작년 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선정되던 날, 10분위라고 적힌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겉으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좋다며 웃으셨지만,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와 함께 학자금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1학기 때에 비해 너무 높아진 소득분위 때문에 속상한 마음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SNS에 소득분위 산정이 잘못되어 등록금 때문에 고생한다는 글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게 저희 가족의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한 학기동안 과외를 하며 돈을 좀 모아 둔 것이 있었지만 등록금에 보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학과 조교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입생이지만 본과·타과 고학년 전공과목 수업들을 여러 개 들으며 항상 관정도서관에 앉아 있었던 것, 매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 학과 신입생 대표를 했던 것.....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대가를 바랐던 적은 없었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는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할 수 있기만을 그려 왔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공부가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곡 이용희 장학금을 받는다는 전화를 듣는다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분께 아주 따스한 칭찬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공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1년간 열심히 살았던 것에 대한 뜻밖의 포상이 생기자 행복했습니다.

2학년 1학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받은 것을 남들에게도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구호단체에 가입하여 방글라데시의 한 아이와 결연을 맺어 매달 제 용돈의 십분의 일을 그 아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규장각 박물관에서 매주 한번,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매달 한번 봉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공부하여, 이번 학기부터 복수전공을 시작하게 되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한 언어 공부도 하고 있으며 동기들을 이끌고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가 끝나고, 학과 조교님으로부터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동곡 이용희 장학금이 두 학기분의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두 번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장학증서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동곡 이용희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고졸 출신으로 사업을 하셔서 성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연고도 없는 서울대학교에 큰돈을 쾌척한 것은 우리 학교의 인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임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났습니다. 제게 서울대학교는 의무보다는 권리였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세분화된 과들에서 듣고 싶은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권리였고, 좋은 도서관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저녁 식사도 천원에 반찬 세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용희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인 제게 그런 권리가 있었던 까닭은 지원받아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할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오직 그 이유로 남보다 많은 권리를 누렸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제게,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장학금은 옆을 보며 함께 달려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찌면 등록금 그 자체보다도 이 교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

서울대학교에 입학한지 벌써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저에게 가장 의미있고 또 평생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시험만 쳤다하면 A+를 받는 모범 서울대학교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던 나의 꿈과 바램을 모두 실현해본,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입학 전, 생활비의 무거운 압박

입학 전부터 저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돈’ 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어머니, 누나와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게도 MBK 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저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대학 합격 후 3개월간 주 5일 9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봤지만 학기 중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학생활은 작은 사회생활이라는 말이 실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난생 처음 누린 자유는 달콤했지만 자유와 함께 찾아온 돈의 압박은 가슴을 옥죄어왔습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과의 만남. 그리고 난생 처음 가져본 나의 시간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한 인재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득분위 0분위, 1분위 학생에게 매달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장학금이었습니다. 물 만난 고기 마냥 기뻐했습니다. 걱정 가득했던 대학생활이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 행복한 상상들로 가득찼습니다. 생활비 마련이라는 마음속 짐을 털고나니 인생 처음으로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을 다 해보자는 생각에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화학생물공학부 야구부에 들어가 미친듯이 야구만 해보기도 했습니다. 방학때 세계수학자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전세계의 저명한 수학자들을 만나 통역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험기간엔 친구들과 밤을 새며 원없이 공부도 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나의 시간’ 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고민해보고 나의 진짜 꿈을 탐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이 만들어준 나의 꿈

그전까지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공학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이 갖게 해준 저의 꿈은 단순히 직업이 아닌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되어 그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때 생활비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닌다는 사실이 죄지은 것 마냥 부끄럽고 숨기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갖게 된 후, 지금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단 감사히 여기게 되었고, 앞으로 성공하여 남을 돕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더 당당해졌습니다.

사익보단 공익을 위해 살아본 지난 2년의 대학생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대학생활을 지내고 싶었습니다. 화학생물공학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선거에 나가 학과 부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에 비해 복지와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고등학교때까지 반장도 한번 해보지 못했던 저를 대표자 선거에 까지 나가게 해준 원동력은 바로 장학금이 만들어준 저의 꿈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한 1년이었습니다. 학생회장일을 하며 힘들고 지칠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저에게 가져다 주는 보람감은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학생활을, 꿈을 만들어주신 수많은 은인

지금의 대학생활은 저의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알차고, 나날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실현하고 싶은 인생의 꿈도 만들었습니다. 저의 대학생활은 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홍진우’의 인생은 저 홀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명의 기부자 선배님들의 지지와 격려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 선한 인재가 되라는 기부자 선배님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